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특집 인간 생명

Vol.04
2011. Spring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3층 생명위원회

TEL : 02-727-2350~3 FAX : 02-727-2355

〈생명을 위하여〉는 생명수호활동과 생명윤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 및 주소변경은 생명위원회(Tel. 02-727-2353)로 연락주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



허영엽 신부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장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느낄 뿐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돈, 명예, 건강, 가족 등 여러 가치를 꼽을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생명이 아닐까? 생명이 없다면 다른 가치는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확실하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창세 1,26-27 참조) 따라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자신 안에 수용할 수 있으며, 우주까지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계획에 유일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며, 단지 ‘하느님의 모상’일 뿐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말은 원래 종교적인 개념이며,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올바른 양심의 형성

어떻게 하면 생명 존중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문제는 우리 교회가 당면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 존중의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우선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닌 침해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을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 참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다.(생명의 복음 96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오로지 객관적 진리를 따를 때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또한 올바른 양심의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성과 사랑, 생명의 참된 의미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도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생명 수호에 관해 분명한 기준과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이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물질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느냐?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특히 보잘 것 없는 약한 생명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와 신앙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존중”이라는 교회의 기본적 가치 수호는 예언자로서의 교회의 소명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이 죽음의 문화에 위협받고 있는 것에 용감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생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특히 더욱 더 솔선수범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모범을 이 사회에 보여 주어야 한다.



Contents

- | | |
|---------------------|---|
| 02 권두언 |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 / 허영엽 신부 |
| 04 특집1: 생명! 오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몸의 신학」에서 본 인간 생명 / 이동호 신부 |
| 10 생명수호의 현장 | 신내동 성당 생명수호위원회 / 주정아 |
| 14 특집2 | ‘하느님의 모상’ 으로서의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 / 조규만 주교 |
| 21 생명사목 | 청주교구 생명학교 / 이준연 신부 |
| 24 생명윤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인간 생명을 전달할 임무에 관한 교회 가르침 1 -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 생명」 해설 / 박정우 신부 |
| 30 체험수기 | 라파엘라가 말하길, “프란치스코야, 환영해!” / 이영미 |
| 36 생명의 신비상 | 편집부 |
| 39 생명 관련 주요단체 연락처 | |
| 41 생명 관련 교육 및 행사 안내 | |
| 43 후원안내 | |

For Life
생명을
위하여

발행일 2011년 3월 22일 / 통권 4호 발행인 염수정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310호 전화 02)727-2352 Fax 02)727-2355 편집디자인 재영아트 02)2276-064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몸의 신학」에서 본

인간 생명



시작하며

교형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내리시기를 빕니다.”(로마 1,7). 그래서 본당에서나 일터와 집에서도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지”(1코린 7, 34) 앓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번 호의 주제인 ‘인간 생명’에 맞추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인 「몸의 신학」을 소개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즉위하신 바로 다음 해인 1979년부터 약 4년에 걸쳐 139회로 매주 수요일 일반 알현 때 하신 것인데, 몸으로 존재하는 인간 인격(생명)의 총체적 의미와 혼인 부부들의 새로운 윤리를 성서-신학적으로 수립해주십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며 해석하시는지라 분량도 방대하고 그 내용도 심오합니다.¹⁾ 여기서는 그리하여, 인간 생명에 대한 개념과 인간 몸이 지닌 의미만을 약술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장소와 시간²⁾으로 넘기려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신부

가톨릭대 윤리신학교수 · 가톨릭교리신학원부장

“처음” : 인간의 본성

마태오복음을 인용하시면서, 교황님께서서는 그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디디십니다. 바로 “처음” 속에서 먼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시고 이어서 인간 생명의 정체를 읽어내신 것입니다.

《3 그런데 바리사인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4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6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마태 19,3-8).

인간의 본성을 규명해줄 핵심 열쇠로서 “처음”을 그리스도께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셨음에 주목하십니다. 창세기를 주석하시면서 그 “처음” 속에서 읽어내신, 인간 본성의 그 필수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소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그 둘째는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룰 존재이며, 그리고 셋째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 그것들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라는 말씀에서, 하느님과의 유사성이 “모습(in the image of God)으로” 그리고 “닮음(in the likeness of God)으로” 이중적으로 강조되고 있음도 읽어내십니다. 이미 ‘image’ 자체가 원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또 ‘likeness’가 추가되어 인간의 본성이야말로 하느님의 본성이 그대로 반영된 유일한 복사본임을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황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거기서 하느님의 본성도 읽어내십니다. 성서 전체에서, 특별히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세 1,26)라는 말씀에서 두 가지 요소를 찾아내시는데, 첫째는 성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으로서 ‘세상에 대한 다스림’(dominion)이고, 그 둘째는 성서 전체 속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서 성삼위께서 맺는 ‘위격들의 친교’(communion of Persons)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세상만물과 자연환경을 책임있게 ‘지배-관리’ 하는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느님의 행위이며,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남녀의 ‘위격들의 친교’도 또한 하느님의 ‘위격들의 친교’의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성사(聖事)라고 규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느님의 친교를 부부의 친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에,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부부행위를 성사, 더 정확하게는 교회의 출현 이전 “처음부터” 있었던, 바로 ‘시원적성사’(primordial sacrament)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흙의 먼지와 … 생명의 숨” : 인간 생명(인격)의 본질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라는 말씀에서 교황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본질을 규명해내시는데, 인간적 생명체(a living human being)로서의 필수요소 두 가지, 즉 ‘흙먼지’로서의 육체적 요소와 그리고 ‘숨결’로서의 영적 요소가 그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을 ‘귀신’ 또는 ‘유령’으로, 영혼이 없는 육체를 ‘송장’ 또는 ‘시체’로 부를 뿐, 결코 ‘인간’ 또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하나의 인간 존재에게는 자신의 영적 요소 즉 ‘영혼’을 표현해줄 유일한 수단은 자신의 육적 요소 즉 ‘몸’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이 ‘인격적 행위’를 하려면 자신의 몸의 전체성을, 다시 말해, 몸이 지닌 남성성과 여성성의 온전성을 몽땅 드러내야 합니다. 몸 그리고 그의 성(sexuality)이 지닌 온전성에서 일부라도 빠지거나 제한한 채(예를 들어, 인공피임을 한 채) 상대방에게 자신을 건네줄 때는, 그 자체로 이미 인격적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 몸의 일치와 출산의 의미

교황님께서는 ‘한 몸’을 위한 남녀의 결합(union) 구조 속에서, 다시 말해, 인격적 행위로서 몸과 성이 지닌 온전성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건네주는 행위 속에서 몸이 지닌 ‘일치적인’(unitive) 기능과 ‘출산적인’(procreative) 기능이 결합된 그래서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즉 인공피임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혼인적’(spousal) 의미를 읽어내십니다. 이때 인간의 몸 자체는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의 ‘선물’(gift of self)이며 또한

‘언어’(language of the body)이며 동시에 그것의 남성성 또는 여성성도 그래서 상대 배우자를 향한 ‘배타적인’ 하나의 선물이며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선물해주는 행위” : 인간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는 방법

교황님께서는 선물로 또는 언어로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원리임을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하느님 자녀들의 결합과 신적 위격들의 결합이 지닌 어떤 유사성을 가리켜 주셨다. 이 유사성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선물하지 않으면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준다.”(『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24:3).

어떤 사람이 아무런 말도 표정도 몸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 줌의 흙먼지를 집어 들고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자! 고 불러내어 ‘사랑의 숨결’을 선물해주셨고(창세 2,7 참조)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

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신”(요한 3,16) 그 사랑을 통해 비로소 우리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16)라는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감하며

땅에 묻어버린 가축의 생명도 안타깝지만, 인간 생명의 축제 일인 설날 연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0리 청년회 일동-”라는 플래카드 “이곳은 가축 집단사육지이니 방역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삼가 해주십시오. -00리 주민 일동-”라는 플래카드가 곁에서 나란히 펼쳐여 더 안쓰러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썼다는 「아빠는 왜」라는 동시가 발표되어 전국의 아빠들이 와글와글 했다는데 필자도 충격을 받았나봅니다. 아예 외워졌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빠해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남편은 왜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몸으로 사는 부부끼리도 서로 순종하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

로' 배우자의 몸 상태와 심리 조건에도 서로 순명하도록 권고하
 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
 십시오.”(에페 5,21).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2코린
 13,11).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참조: John Paul II,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trans. by Michael Waldstein, Pauline, Boston 2006, 735p.

2) 필자는 혜화동 가톨릭교리신학원에서 2011학년도 1-2학기 영성강좌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 대한 원리 파악과 본문 강독」을 개설할 예정이
 다. 비록 줄여이지만 교황님의 문헌을 직접 접해보는 기회들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필자가 '몸의 신학'에 대해 몇 차례 요약 강연을 한 적도 있고 또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연재하며 소개한 글도 있다. 참조: 줄고, 「'몸의 신학' . 몸
 과 혼인에 대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르침」, 『경향잡지』 (2010.01.-201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내동 성당 생명수호위원회



이기우 주임신부와 생명수호회 위원들이 본당 내 생명운동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부터 ‘본당 생명수호 담당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본당을 중심으로 각 가정과 지역 사회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돕는 노력의 하나다.

특히 본당 생명수호 담당자 제도는 한국교회 안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목적 배려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본당에서는 가정사목이나 교육 관련 담당 등이 생명수호운동을 겸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각 교구와 한국교회 차원에서 펼치는 생명수호 활동이 신자 개개인의 가정에까지 확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각 본당 생명수호 담당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생명수호의 현장’에서는 교구 내 각 본당 생명수호위원회 활동을 탐방, 본당 안팎에서 생명지킴이로서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본당 생명수호 담당자’들의 활동을 짚어본다.

서울 신내동본당 생명수호위원회(위원장 김덕수, 이하 위원회)는 생명수호 관련 교육의 결실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30일 공식 발족됐다. 기존 가정사목분과를 중심으로 매리지엔카운터(ME) 부부들과 호스피스 봉사 교육 수료자 등이 위원회 구성의 주축이었다. 2011년 3월 현재 활동 위원은 10명이다.

“생명수호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본당 사목위원들을 비롯해 신자들이 위원회에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었다. 사실 위원회 발족 직후에는 위원들조차도 생명수호운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준 활동은 교육 참여였다.

위원회는 우선 교구 생명위원회가 실시하는 담당자 교육 및 각종 생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생명문헌읽기, 참생명 학교를 비롯해 특강, 피정, 대회 등에도 능동적으로 나섰다. 각종 교육 과정은 위원들의 의식과 삶의 방향부터 크게 변화시켰다.

“생명 관련 교육을 받기 전에는 ‘생명 수호’라는 단어 자체도



낮설었습니다. 딱히 생명수호운동에 제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명을 향한 평신도로서의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히 갖출 수 있었습니다.”

김덕수 위원장의 말이다.

부부가 함께 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경희(베네딕타)·최완용(베네딕토) 부부는 “사도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전문적인 생명 관련 교육을 받아보거나, 생명수호활동을 직접 접한 적은 없었다”며 “위원으로서 교육을 받으며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살아온 지난 삶을 반성하고, 생명과 관련한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감사하다”고 토로한다.



위원회는 우선 본당 홈페이지(www.shinnae.com)를 통해 생명 관련 이슈와 정보, 교회의 가르침 등은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 매월 둘째 화요일마다 월례회의를 마련, 본당 안팎에서 실시할 활동계획도 단계별로 수립해나가는 중이다.

특히 위원회는 신자들이 생명수호에 대해 폭넓게 공감대를 갖고 실천에까지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본당 내 각 단체는 물론 각 구역과 반모임 등과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을 존중하는 노력은 일부 단체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식이 바탕이 됐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생명수호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입니까?”

본당 사목위원들을 비롯해 신자들이 위원회에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었다.

사실 위원회 발족 직후에는 위원들조차도 생명수호운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준 활동은 교육 참여였다.

본당 예비신자들을 위한 생명교육도 담당할 계획이다. 이는 본당 주임 이기우 신부의 권유로 준비 중이다. 교육자와 의료인, 법조인 등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당 신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에도 힘을 실어나갈 방침이다.

김덕수 위원장은 “신자 개개인이 생명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당 전체 차원에서의 교육을 독려하고, 나아가 각 단체와 구역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명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타 본당 생명수호위원회와도 교류하고, 지구 및 지역 차원의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신자들의 의식 개선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낙태 근절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캠페인 등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 생명존중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교리 제공이 아닌,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본당과 지구, 지역 차원의 생명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 교구 차원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청각 교재를 다양하게 제작, 보급해주길 기대하는 바람도 크다.



취재 : 주정아 기자
가톨릭신문사



조규만 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 시대

최근 우리사회는 생명이 경시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¹⁾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자살율과 낙태시술 국가라는 통계가 우리나라의 생명 의식 수준과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물복제에 성공한 생명공학이 인간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인간 생명이 희생되거나 실험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인간은 임신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그냥 살덩어리나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엄연한 하나의 인격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은 이러한 현실을 죽음의 문화로 규정짓고, 반생명 문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²⁾

인간 생명의 존엄성의 근거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생명은 소중합니다. 누구나 다 인

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분명하게 인간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 인권선언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³⁾ 그런데 인간이 왜 존엄하고, 인간 생명이 왜 소중한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김철수는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적(天賦的)인 것이라고 언급할 뿐입니다.⁴⁾ 유엔 인권선언문은 그저 타고 태어나는 것(inherent dignity)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언급합니다. 구약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模像)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첫 3장에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날에도 창조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화론자들과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창조 이야기는 신문 기사와 같은 사실 보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진실을 주체 삼아 펼쳐

진 신앙의 진술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변 호하자면, 아무리 진화한다 하더라도 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존재는 창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은 인간처럼 고정된 물건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 1, 26-27에 인간창조에 앞서 하느님의 말씀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은 한 분 뿐이시라는 유일신 신앙을 절대적으로 내세웠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리’라는 복수 1인칭을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삼위 일체 신앙을 암시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 다만, 그보다는 당시 주변 국가들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중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 왕은 항상 어전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일을 매우 중대한 것으로 여기셨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

정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창조에 대해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그만큼 인간 창조가 다른 어떤 창조보다 하느님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무엇을 닮았는가?

하느님의 모상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말 본문을 인용하였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Selem’, ‘Demut’ 입니다. ‘Selem’은 조각이나 성상처럼 구체적인 닮은꼴을 드러내는 것의 보통명사로서 ‘모상’, ‘모습’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Demut’란 ‘닮음’, ‘비슷함’, ‘유사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추상명사입니다. 이 두 용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아버지 아담을 닮았다고 표현할 때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느님의 무엇을 닮았는지 답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인간이 닮은 하느님의 모상이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영적 능

력', '지성', '사랑', '인격성', '이해', '자유의지', '자아의식'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심지어 외모가 닮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 심지어 직립 보행하는 것이 닮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하느님을 닮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답을 찾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느님을 닮은 인간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인간이 닮은 하느님의 모상이란 인간의 어떤 특별한 자질이 아니라 인간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혹은 행하는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은 만일 그가 하느님의 모습, 모상이 아니라면 인간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바로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모상인 것이다.”⁵⁾

저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합니다. 만일 하느님의 모상이라

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별한 자질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자질이 결여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 그만큼 결여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인간의 지성이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하느님을 더욱 닮은 존재가 되고, 지력이 낮거나, 치매환자, 식물인간은 하느님을 덜 닮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모상을 상실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비록 지적 능력이 약하거나 결여되어 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이거나 어린이거나 태아거나 모두가 인간인 이상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비록 장애인거나 정신적인 지진 아일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아담을 닮은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00년에 교황청 장애인들의 대회년 준비 위원회는 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인 우리 인간은 그분과 결합되어 있으며, 하느님과 마찬가지로 신비에 싸여 있다. 인간은 참으로 풍부한 실재이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모든 창

조된 실재의 가치를 뛰어 넘는다. 유일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간의 고유한 존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존재인 인간은 모든 외적인 모습을 초월하여 그의 존재와 능력과 자유로써,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으로 그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반영한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영예와 영광과 존엄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저녁에 동산’ (창세 3,8)에서 하느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친교를 맺는 능력과 책임을 주셨다.”⁶⁾

신인 동형론?

물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 Xenophanes의 비판에 우리의 입장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결국 인간이 말을 할 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아니까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 아니냐? 만일 짐승이 말을 할 줄 알고, 또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그들은 신의 모습을 짐승의 모습으로 그려내지 않았겠느냐? 사실 성경은 하느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

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인동형론’ (神人同型論)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느님이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걷고, 오른손을 내밀고, 분노하고, 힘 켜 팔을 펼치시어 도움도 주고 벌도 내리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월의 하느님이십니다. 곧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이러한 초월성과 비가시성을 자주 ‘하느님을 뵈게 되면 죽게 된다.’ (판관 13,22; 탈출 3,7참조)고 표현하였습니다. 고전 신학의 전통은 이러한 하느님의 초월성과 초월성으로 인한 하느님의 불가해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고전 신학의 이러한 통찰을 다음과 같이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당신의 생각에 속았을 뿐입니다.”⁷⁾

이렇게 비가시성과 초월성을 하느님의 특성으로 주장하면서도, 인간에게 체험된 하느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라

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은 하느님을 인간동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녀 동등성으로서의 하느님 모상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동등하게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

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 1,27). 사도 바오로는 남성은 하느님의 모상이요, 여성은 남성의 모상이라고 해석하였지만 그것은 당시 남성중심의 유다 사회를 반영할 뿐입니다. 구약성경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병자, 노인, 어린이를 상관하지 않고 인간은 모두 존엄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송열섭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24-27쪽 참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에 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일컬어 ‘죽음의 문화’라고 지적하며 경고한 바 있다.
 - 2) 그리스도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이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일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사명을 지니셨음을 분명히 밝히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
 - 3) 1947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인간의 권리를 선언하며 그 근거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인권 선언문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 4)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서울 1983(신판중판), 74-75쪽 참조.
 - 5)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 P, 206(클라우스 베스터만, [창조], 황종렬 옮김, 분도출판사 1991, 89쪽 재인용).
 - 6) 교황청 장애인들의 대회년 준비 위원회, [장애인들의 대회년 준비](2000. 12. 3)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17(2001) 198-199쪽.
 - 7) 엘리사벳 A 존슨, [하느님의 백한 번째 이름] 함세웅 옮김, 바오로 딸, 2000 169-181쪽 참조.

2011년도 후기 '인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인재양성기금'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을 포함한 생명과학분야 연구와 생명관련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발전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여 이 땅에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생명문화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기금입니다.

1.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1) 학비 장학금 지원분야 :

- 장차 가톨릭교회의 생명수호 활동에 참여 가능하며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외 교육기관 대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또는 입학예정자
- 성체줄기세포 치료 및 연구 분야, 생명관련 인문사회과학분야(생명윤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신학 등)

(2) 생명관련 논문 작성비 지원 분야 :

- 대학원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인간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자 중 인재양성기금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대졸이상)

(3)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분야 :

- 인간생명 관련 분야 학회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연구 발표나 단기 간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신청 절차

- (1) 접수기간 : 2011. 3. 1. ~ 2011. 6. 30.
- (2)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 당일 우편소인 유효)
 - 보낼 곳 : (우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5번지 교구청별관 3층 생명위원회
- (3)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첨부서류(홈페이지 참조)

3. 기타 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결과발표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8월15일 이후)
- 다. 자세한 공모사항은 홈페이지(www.forlife.or.kr)를 참조
- 라. 문의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
☎ 02) 727-2352 forlife@catholic.or.kr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후원 :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주)평화드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청주교구 생명학교

“생명학교”는 무엇보다
성과 생명이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며,
그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준연 신부
청주교구 가정사목국장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불굴의 신념으로 모든 시대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를 ‘기쁜 소식’으로 전파하여야 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1항)

2010년 춘계 주교회의는 교회의 조직적인 생명 운동을 전개하고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생명운동본부가 건의한 사항, 곧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청주교구는 2010년 4월 23일자 공문에서 각 본당에 생명운동부장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교구 내에 언론계, 의료계 및 교구 내 생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다양한 생명 파괴 현상들과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합니다. 교구 생명위원회와 본당 생명운동부는 이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즉 본당이 생명운동의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 복음 선포를 구현하는 장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의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평신도 인재 양성을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들의 성향에 따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생명에 대한 정보와 교육 및 전례 자료들이 평신도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외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행사 위주의 일시적인 생명운동에 참여하여 온 것이 그동안의 교구 생명운동의 현실입니다.

2010년 전국 생명대회는 교회 내 생명운동에 새로운 장을 여는 축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생명운동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교육과 함께 축제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마치며 가슴 한 편에 남아 있는 허전함은 바로 인재 양성과 소통 및 공감에 대한 또 다른 열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청주교구 교구장 주교님은 2011년 사목지침서를 통해 “생명학교”를 제안하셨습니다. “생명학교”는 무엇보다 성과 생명이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며, 그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전파하며, 교구 내에 생명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양성하여 교구 내에 생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명운동을 통해 결국 지역사회를 복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과정(2학기)을 원칙으로 하며, 매

주 수요일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수업을 하며, 교회 내에 최고의 권위자를 강사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1년 과정을 마치면 수강자들은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교구 내에 생명 교육 자료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일부는 심화 봉사자 과정을 거쳐 필요한 본당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견될 것입니다.

성과 생명은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봉사자 양성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바쁜 일정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강사님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다른 교구에서도 다양한 생명학교가 탄생하기를 희망합니다.

* 문의 : 청주교구 가정사목국 ☎ 043) 210-1733

제1기

청주교구 생명학교

성과 생명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봉사자 양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 강 >> 2011년 3월 16일
일 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수강료 >> 21만원(개인 7만원, 본당 7만원, 교구 7만원)
마 감 >> 2011년 3월 2일(수요일)까지
주 관 >> 청주교구 생명위원회

교육과정

주제 및 강의	강사	비고	때
입학마사 및 오리엔테이션	이준연	가정사목국장	3월 16일
성경 안에 드러나는 생명의 가르침	정윤진	성경사도직 지도신부	3월 23일
물의 신학 -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배미리진	한국천주교 지도수녀	3/30, 4/6
인간생명의 시작	김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4월 13일
회칙 '생명의 복음'	박정우	서울대학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4월 27일
출산의 의미, 자연출산조절의 가치	이수희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5월 4일
인공적인 피임과 그 상처를 아십니까?	차희재	프라이프 의사회 대표	5월 11일
낙태와 저출산을 말한다	차희재	프라이프 의사회 대표	5월 18일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인공배아에 대해서	김남오	용암동 주임신부, 교구생명위원	5월 25일
자살, 안락사, 사형,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서철	모종동 주임신부	6월 1일
뇌사와 장기기증	윤경중	한마음운동본부	6월 8일
생명복제와 줄기세포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명광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6월 15일
법률적인 문제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송물선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9월 7일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의미와 호스피스	박정환	성오꽃마을 원장	9월 21일
사회복지를 통해 구현되는 생명	이수환	청원군노인복지관 관장	9월 28일
대중문화 속에 드러난 왜곡된 성 그리고 정결	이광호	낙태예방, 생명문화 연구기	10/5, 12, 19
생명문화와 죽음의 문화에 대한 중상적 고찰	신상현	꽃등네 원장	10월 26일
교회의 자연출산 조절 인식 및 홍보	차희재	프라이프 의사회 대표	11월 2일
'영양 지향' 실천 및 생명문화 건설을 위한 노력	송물선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11월 9일
생명운동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이준연	가정사목국장	11월 16일
청주교구 생명운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방향	이준연	가정사목국장	11월 23일
수료마사 및 수료증 전달	정병훈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위원장	11월 30일

장소 ■ 교구청 대강의실 문의 및 접수 ■ 043-210-1733 주최 ■ 청주교구 가정사목국



인간 생명을 전달할 임무에 관한 교회 가르침 1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 생명> 해설



박정우 신부
가톨릭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회칙의 배경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은 인공 피임 등 인위적인 산아제한을 금지하는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1968년 7월 25일에 반포되었다. 이 회칙은 반포 당시 교회 안팎으로 상당히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교황의 회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반대를 받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19세기 이집트 파피루스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임을 시도해온 역사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공적으로 사회에서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토마스 맬더스(Thomas R. Malthus(1766~1834))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식량대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통제가 필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산업 혁명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고 임금 노동 경제가 확산

되면서 가장이 부양해야 할 자녀들은 이제 경제적인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생식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더 안전한 피임 방법과 도구가 생겨났고, 부의 확대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성(sexuality)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생식의 수단으로서의 성은 이차적인 것이 되고 남녀 간의 상호관계와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 된 것이다.

1914년 간호사였던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 1879-1966)는 피임법을 보급하는운동을 펼치며 ‘산아제한(birth control)’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1921년에는 미국산아제한연합(American Birth Control League, ABCL)을 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녀의 운동을 비난하였고, 법적으로도 미풍양속을 어긴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가렛 생어의 활약으로 1930년대부터 산아 제한(birth control) 혹은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1960년에는 경구피임약이 발명되어 미국식품의약국(FDA) 판매 승인을 받아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피임약의 보급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이 자녀 출

산과 양육의 짐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더구나 각국의 정부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산아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였기에, 인공피임을 통한 출산조절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62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과 ‘대화’ 등을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에 변화된 세상에 맞추어 교회도 경구피임약과 같은 인공 피임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신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퍼져있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교회에서도 산아 제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반 해도 모든 그리스도교가 인공 피임을 반대했었다. 그러다 1930년 성공회는 램베스 회의(Lambeth Conference)에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 안에서 인공 피임을 허용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어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도 피임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교황 비오11세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관하여’라고도 부르는 회칙 정결한 혼인(Casti Connubii)을 발표하여 인공피임은 본질적으로 그르다는 교회의 전통을 확인하였다.

또한 1930년 일본의 큐사쿠 오지노(Kyusaku Ogino)와 오스트리아의 헤르만 크나우스(Hermann Knaus)가 여성

의 주기 안에 임신이 되지 않은 ‘안전한 기간(safe period)’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주기 중 배란이 되는 기간에만 성관계를 절제함으로써 임신을 피할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이를 리듬법(rhythm method)이라고 하는데 가톨릭교회는 논란 끝에 1951년 비오12세가 ‘이탈리아 가톨릭 산파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심각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가 리듬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혼인의 온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허용하였다.

1960년대초 다시 피임 허용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교황 요한23세는 산아제한 문제를 공의회에서 대신에 특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하고 1963년 3월 의사, 인구학자, 사회학자 등 평신도 4명과 성직자 2명으로 구성된 〈인구, 가정, 출산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3개월 후 요한23세가 선종하였고 바오로6세가 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였는데, 1963년 10월부터 1966년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의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 위원 수가 증가하여, 마지막 회의까지 총 55명(또는 57명)이 참여하였다.

1966년 6월 28일 특별위원회는 바오로6세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는데 51명(또는 53명)은 인공 피임을 허락하

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따로 전달된 4명의 소수 의견은 피임 허용은 하느님의 법을 바꾸는 것으로 교회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영국의 〈타블렛(Tablet)〉과 미국의 〈더내쇼날 리포터(The National Reporter)〉등 교회 언론에 알려지면



서 교회 안팎으로 피임 허용에 대한 기대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바오로6세는 2년 동안 숙고하면서 결정을 미루다 마침내 1968년 7월 교회의 전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어떤 종류의 인공 피임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간 생명」을 발표하였다.

성 해방, 여성 해방 등의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이미 가톨릭신자들의 삶에 인공피임이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자연법을 준수하고 인간 생명 전달에 있어서 창조주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은 인공 피임을 거부하고 자연출산조절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회칙 「인간 생명」은 발표 직후 심각한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그릴리(Andrew Greeley)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가임기 가톨릭 여성의 4분의 3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가톨릭 신자의 80%가 인공피임을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 회칙의 발표로 많은 이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났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당시 미국 가톨릭대학 윤리신학 교수였던 찰스 쿠란(Charles Curran) 신부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공개적인 반론을 제기하며 피임과 같은 사적인 부분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가톨릭 신학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였기에 바오로6세는 회칙 반포 일주일 후인 1968년 7월 31일 카스텔 간돌포에서 열린 일반 알현에서 당신의 고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이 회칙과 회칙을 준비하는 동안에 느꼈던 나의 심정을 꾸밈없이 밝히려 합니다. 첫째로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연구하여 이 회칙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였던 지난 4년 동안 내게는 이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책임감이 내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나는 교회와 전인류에게 해답을 주어야 하였고, 내게 맡겨진 사도적 사명의 의무와 자유를 고려하여 교회의 오랜 전통, 즉 최근의 세 분 전임 교황들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였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열광적으로 전개하는 치열한 토론도 알고 있었고, 대중과 출판물들의 요란스러운 여론도 들었으며, 아버지요 목자인 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존경할 만한 부녀들의 어려운 환경과 심각한 체험들도 들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와 위정자들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세계 인구 문제에 관한 학적 보고서도 읽었습니다...이렇게 산더미같이 모여든 논증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당황하였으며,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할 끔찍

한 사도적 사명에 스스로의 부당함을 몇 번이나 다시 느꼈 습니다. 시대적 여론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의 의견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 멋대로 부부 생활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몇 번이나 주저하였습니다.”

이런 오랜 고뇌와 주저 속에서도 결국 바오로6세는 “진실한 인간적 사랑의 내적 요구와 혼인 제도의 본질적 구조와 부부의 인간 품위와 생명에 대한 부부의 봉사 사명과 그리스도 신자 부부의 성스러움에서 유래하는 신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 생명」에 강조한 ‘빌링스법(Billings Ovulation Method)’와 같은 자연출산조절법이 개발되고, 「인간 생명」에서 경고한 인공 피임의 폐해가 현실화 되면서 바오로6세의 결정이 예언자적인 안목이었음을 인정하고 「인간 생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인간 생명」 회칙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다음호 계속



라파엘라가 말하길, “프란치스코야, 환영해!”

이 수기는 2010년 생명위원회와 평화방송·평화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4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영미 / 글라라

호환마마보다 추위를 더 무서워하는 제게 지난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봄의 행보가 이토록 더디니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3월도 봄을 전해주지 않아서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낸 참이었습니다. 3월이 다 저물어가자 저는 기다림조차 잃었습니다.

일이 한 시간 정도 일찍 끝나 아이들의 피아노 학원 앞에 차를 세우고 차창을 엽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의 소음보다 먼저 차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봄입니다!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는 시인의 말처럼 올봄은 꼭 그렇게 제게로 왔습니다.

넷째 아이 프란치스코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손등이 온통 초록 물감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난 꽃씨 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열 살 배기 사내아이입니다. 뛰어난 정원사를 일컬어 서양 사람들은 <초록색 엄지>를 가졌다고 하는데, 손등을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인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는지, 아이가 마당에 심어놓은 한련화의 만개를 기다리는 마음보다 흥미진진합니다.

10년 전, 이 아이가 태속으로 찾아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조산(早産)의 위험을 면하고 셋째를 낳은 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첫 아이 라파엘라를 돌보는 긴 세월 동안 소진된 몸은 세 번째 출산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임신은 그래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임신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던 무렵, 저 역시 임신이 아니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제 안에 고이는 우려가 겹치고 섞여서, 그해 봄은 라파엘라의 등하교 길에 노란 희망의 빗길로 도열한 개나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심난하던 마음은 희한하게도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임신 선고(?)를 받던 날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임신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 모성이 온 몸을 <임신 유지 모드>로 전환시킨 것만 같았습니다.

“열 달 후에는 세 아이처럼 우리에게 끔찍이 소중한 존재가 될 텐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를 낙태시킬 수는 없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안의 그 모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네 번째 임신 자체를 놀라워했고, 첫 아이의 장애를 개의치 않고 네 번째 임신을 감행하는

무모함을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확인 후 5개월이 되도록 병원을 찾지 않는 또 하나의 무모함에 대해서는 우려를 넘어 비난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을 확인하고 5개월 만에 나타난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은 드러나게 심통을 부렸습니다. 산전검사를 비롯한 기형검사를 해야 할 시기가 훌쩍 지난 때였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세 아이를 출산했던 대학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써주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를테면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 〈영양가 없는 고객〉이었던 셈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심통은 물론 영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임신부가 마땅히 받아야 할(진정 마땅한 것인지 의문스럽지만) 모든 검사를 거부한 무지몽매한 모성에 대한 의사로서의 그의 비난은 일면 타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은 제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임신은 저희 부부에게 계획된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기쁨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모든 임신부들처럼 철분제를 섭취했고, 간염검사를 받았으며, 기형검사에 응했습니다. 세 번째 임신은 기꺼운 인연이었고 임신과 관련된 모든 검사들은 고민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전에 그 기쁘고 자연스러운 임신 과정의 일부로 편입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 임신은 달랐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이었다는 하나의 사실과 넷째 아이를 낳아 기를 만한 정신적, 육체적 여력이 없었다는 또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것은 고민의 상황으로 제 앞에 던져졌습니다. 임신 자체가 고민의 상황이 되자 임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도 고민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생명은 그 생명이 지닌 생명력을 떨치도록 보전되어야 하고, 그 보전되어야만 하는 생명에 우열을 매길 수는 없다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은 네 번째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단순한 생각이 아닌 신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신념으로 품지 않으면 네 번째 아이와의 인연은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념은 기형검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양



수검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임신 5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검사에 충실히 임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무모한 결심은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굳었고, 그 결심은 의사의 이해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아이의 정상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부당한 일로 여겨졌던 또 다른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애아인 첫 아이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첫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태속의 아이가 정상아인지를 <감별>했을지도 모릅니다. 첫 아이가 열 살이던 그 해, 태속에 자리한 열 살 터울 동생의 정상 여부를 감별한다는 것은 제게 첫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로 느껴졌습니다. 태속의 넷째에게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서 임신중절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것은 첫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전검사에서 이상을 알 수 있었다면, 너의 삶도 그 순간 중절되었을 거야, 우린 네가 <정상아>라는 확신으로 임신을 유지했던 거야, 그런데 너는 <정상아>로 태어나지 않았어, 난

현대의학이 걸러내지 못한 <실수>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네게 합당하지 않아….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생명이 생명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수검사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듯이 보이는 행위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행위로써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타당한 낙태가 있다고 말하며 열등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그 미약한 생명이 태어나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삶을 누리는 짧은 시간조차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지 않습니다. 강을 죽이고, 생명들을 죽이고 기어코는 인간을 죽이는 세대에 분노하고 저항하지 않으니, 암묵적으로 그 모



든 살생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열등한 개체는 자연도태 된다는 생물학적 진실을 유일한 진실로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변해있었습니다. 그것도 맹신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 맹신자 중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장애를 가진 큰아이가 알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큰아이 라파엘라는 한 마디 말을 할 줄 몰랐지만, 그렇게 자신의 온 영혼과 존재로 넷째아이 프란치스코를 환영했고 지켜냈습니다.

열등하고 열외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첫아이와 우리가족 앞에 놓인 삶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고, 펜션에서 숙박거부를 당한 일쑤은 우리 삶의 작은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열>과 관계없이, <다름>과 관계없이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자 만든 작은 공동체,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삶의 터전이 되어주길 소망했던 그 공동체조차 애초의 신념에서 자꾸만 이탈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역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몇몇의 전문가나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공동체의 신념과 운명을 맡기지 않는 주체적인 공동체, 내 안의 하느님과 내 아이



들과 내가 가진 것들, 진정한 나의 것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직한 공동체, 서로의 아픈 아이를 함께 돌보고 서로의 무거운 삶을 함께 떠받치며 서로의 저녁식탁에 가지무침 한 접시를 올려놓아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 목도리를 두르지 않아도, 그저 입고 있는 트레이닝 복 차림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면 찬 바람이 목덜미를 넘어 들어오기 전에 그 <서로>의 문 앞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공동체, 특정한 신념과 목적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가득 고여 넘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의 생일을 맞은 지난 가을, 저는 네 아이를 데리고 우리의 특수하고 예외적인 삶으로부터 잠시의 일탈을 시도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장의 초지 위에서 부동의 자세로 서있던 양들의 침묵, 비바람과 함께 포효하는 동해의 장관, 청송의 사과과수원, 짧은 동행을 부탁하던 국도변의 촌로(村老), 유서 깊은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지리산의 둘레길, 호방한 사내 같은 화엄사와 그의 연분 같은 어여쁜 쌍계사, 그리고 늦가을 아쉬운 햇살을 한껏 품고서 차나무를 키워내는 쌍계계곡의 고즈넉함... 짧은 일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것들의 대략일 뿐입니다.

5박6일의 여행 동안 만난 식당 아주머니와 경관 아저씨, 그리고 과수원의 노인인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라고 해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자신을 <엄마>라는 가늠한 호칭으로 소개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더군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 양반이 같은 소리들을 하시니, 네 자녀를 둔 <막강가족>의 자궁심에 찬물을 끼얹는 서글픔이 몰려왔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별나구나, 사람들은 우리를 별나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충남 운산에 계신 외숙부님 댁을 찾아 뵙는 것이었습니다. 태백의 한 공동체보다도 기실 가장 찾아 뵙고 싶은 분들은 그분들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온 세상의 산모들을 지배하기 전에 첫아이를 낳으신 외삼촌과 외숙모-

그분들은 지능이 평균치(?)를 밑도는 그 큰아들과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이 살아갑니다. 나이 마흔이 넘은 아들입니다. 이제 짝을 지어 줄 마음도 젊으신 것 같고, 큰아들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함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무기력과 무책임으로 자책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자식을 바라보며 느꼈을 고통이 어찌 무겁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고통이 그분들을 짓눌러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크고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까닭에 아무도 이들 가족의 삶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그저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달래 밭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찍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대지 위에 그렇게 선명하게 인장을 남깁니다. 흙 고랑에 그들 존재의 무게만큼 패인 발자국은 비와 바람이 그것을 흐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흐트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드러나지 않는 커다란 용기가 부럽고 작지만 단단한 평화가 부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용기와 평화가 깃발처럼 가볍게 펄럭이는 외침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분들의 삶과 하나가 되어있다는 것에 숙연해 집니다. 해마다 한식 때면 찾아뵙곤 하던 그분들을 올봄에는 찾아뵙지 못하니 더 그립습니다.



생명의 신비상

편집부

지난 2월 15일 제5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우리나라 종교계에 서는 처음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난치병 치료지원에 필요한 생명과학분야의 연구업적을 내거나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기관) 및 생명수호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명칭은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1994년 2월 11일 세계 병자의 날에 발표한 자의교서 「생명의 신비」¹⁾에서 따왔습니다.

생명의 신비상은 ‘학술분야’ (생명과학/인문사회과학)와 ‘활동분야’로 나누어 공모하고 있으며, 분야를 포괄하여 대상과 본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려상 제도는 인간생명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제4회부터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상자를 살펴보면,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엘리오 스그레치아 대주교(1회 학술분야), 독일 막스 프랑크 뇌연구소의 하인즈 뵘슬레 소장(1회 학술분야),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대 메리 앤 글랜던 교수(1회 활동분야), 호주 시드니대교구의 조지 펠 추기경(2회 대상, 활동분야), 미국 툴란대학 유전자치료센터 다윈 프로캅 교수(3회 학술분야),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튼 경(3회 활동분야), 미국 하원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4회 활동분야)과 같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국외 인물이 선정되는 한편 국내 수상자로는 서울대학



교 정명희 교수(1회 학술분야), 경희대 노인성 및 뇌질환연구소의 오태환 소장(1회 학술분야),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1회 학술분야), 포항공과대학 성영철 교수(2회 학술분야), 생명문화연구소(2회 학술분야), 가톨릭조혈모세포이식센터(3회 학술분야), 서울대학교 진교훈 명예교수(4회 학술분야), 한국틴스타(4회 활동분야)처럼 국내에서 관련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지닌 연구자 및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제5회에는 서울대학교 강창울 교수(학술분야),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학술분야), 남미 가정연맹 크리스틴 데 볼머 총회장(활동분야)과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윤경중 부장(활동분야)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를 망라하는 생명의 신비상의 운영은 생명 수호에 큰 몫을 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련분야에서 묵묵히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증진하는데 헌신하는 연구자나 활동가를 발굴하는 일은 향후 생명의 신비상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6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신비상을 통해 인간생명의 수호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자의교서 「생명의 신비」는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생명과학시대인 오늘날 새롭게 위협받는 인간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교황청 생명 학술원’을 설립하며 반포한 문헌입니다.

'생명의 신비상' 제6회 공모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용

가. 공모부문

- (1) 학술분야 : 생명과학분야 / 인문사회과학분야
- (2) 활동분야

나. 시상내용

- (1) 생명의 신비 대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3천만원)
- (2) 생명의 신비 본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2천만원)
- (3) 생명의 신비 장려상 :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1천만원)

- ※ 모든 상은 학술분야(생명과학/인문사회과학)와 활동분야를 포괄하여 선정합니다. 대상 수상자는 1인이며, 본상과 장려상 수상자는 복수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상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시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응모자격

가. 학술분야 : 생명과학분야

- 세포 치료 및 연구 분야에서 난치병 치료법 개발 등 탁월한 업적을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성 증진과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개인 및 단체

나. 학술분야 : 인문사회과학분야

- 윤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및 신학, 그 밖의 유관 학문분야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고양하는데 독창적인 연구업적 및 학술저서를 남긴 연구자 개인 및 단체

다. 활동분야

- 종파와 관계없이 인간생명을 수호하고 돌보며,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널리 알림으로써 생명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활동가 개인 및 단체

3. 후보자 추천인

가. '생명의 신비상'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신청

나. ① 각 대학교의 총장

② 학술단체장

③ 국공립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한 신청

- 다. 활동상의 경우는 추천인의 제한이 없으며, 활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료를 들어 제보

4. 응모 절차

- 가. 접수기간 : 2011. 4. 1~2011. 7. 15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보낼 곳 : 서울 중구 명동 2가 1-5번지 교구청별관 3층 생명위원회 (우100-809)
- 이메일 : forlife@catholic.or.kr

다.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본 위원회 소정양식) 1부 및 첨부서류

라. 첨부서류 :

<공통>

- 추천서 1부
- 이력서 1부(학력, 경력, 수상경력 내용을 포함하며, 수상경력에는 증빙자료 첨부)
- 사진 1매(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 주요 업적 증빙자료 각 1부
- 재직증명서 1부

<학술분야>

- 대표 연구업적 1편(초록 포함)
 - 관련 저술 및 논문 리스트 1부
- (학술논문은 게재된 학술지 등 출처를 명기해야 함)

5. 발표 및 시상

가. 수상자 발표 : 2011년 12월 4일(주일)

생명수호주일 및 생명위원회 설립 기념 '생명미사' 중 발표

*위원회 홈페이지 및 교회 주요언론지에 공고

나. 시상식 및 수상자 강연회 : 2012년 2월 11일(토) 세계 병자의 날

* 시상식 날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세한 공모 사항과 제출서류 양식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727-2350 forlife@catholic.or.kr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후원 :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주)평화드림

1. 위기임신 전문상담

♡ 상담의 대상

1. 임신부 : 기혼자, 미혼자, 청소년 등
2. 임신부의 배우자 / 태아의 부친
3. 낙태경험자
4. 낙태경험자의 가족
5. 낙태관련 종사자

1) 영성생활상담소

1) 문의가능시간 및 연락처 :

월~금 9:30~17:30 ☎ 02) 776-8405, 02) 776-2516

토/일 10:00~17:00 ☎ 010-9770-7461

2) 상담장소 : 영성생활상담소 상담실(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24호)

3) 홈페이지 : <http://www.rcckorea.or.kr>

2) 나우리심리상담센터

1) 상담운영시간 : 월~금 10:00~18:00 (사전예약시 21:00까지 가능)

2) 문의 및 연락처 : ☎ 02) 986-4447 / 011-9733-4466

3) 상담장소 : 나우리심리상담센터 상담실(성북구 동선동3가 163번지 3층)

4) E-mail : ks1467@hanmail.net

2. 장기기증 · 시신기증 ·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모든 상담 및 신청가능)

☎ 02) 3789-3488 www.obos.or.kr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시신기증)

☎ 02) 2258-7135

3)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조혈모세포 및 제대혈기증)

www.chscb.com

- 제대혈기증 ☎ 02) 2258-7458

- 조혈모세포기증 ☎ 02) 532-6517

3. 성교육(청소년 & 청년)

한국 틴스타 ☎ 02) 755-2629 www.teenstar.or.kr

4. 자살예방 상담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 1599-3079(생명친구)

www.3079.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02) 727-2350

www.forlife.or.kr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 02) 460-7623

<http://bioethics.cbck.or.kr>

<http://prolife.cbck.or.kr> (생명운동본부)

♡ 생 명 기 : 모 자 보

	단체	전화	이 지
미혼모 시설	마음자리	02) 2691-4365	momari@naer.com
	들 의 집	031) 457-4383	saessach@hanmail.net
	생명의 집	031) 334-7168	smh119@hanmail.net
	인천 자모원	032) 772-0071	http://inamo.or.kr inamo2000@hanmail.net
	마리아의 집	033) 262-4617	www.marhome.or.kr
	대전 자모원	042) 934-6934	amowwon-t@hanmail.net
	자모원	043) 212-0437	www.amowon.or.kr amowon0@kornet.net
	마리아 모성원	051) 253-7543	www.marmosnwon.or.kr mosnwon@hanmail.net
미혼모자 공동 생활시설	성모의 집	061) 279-8004	sm2010@hanmail.net
	함께 는 집	02) 855-0370	ear n in@hanmail.net
	스 라 의 집	032) 864-0055	sralentina@hanmail.net
	모 니 의 집	032) 832-8075	ssanna2006@hanmail.net
	요 의 집	033) 242-4617	mather-bab@am.net
	마리아 모성의 집	051) 255-7543	mosneiip@naer.com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055) 244-1784	no0720@hanmail.net
	동 네 천사의 집		

입양원	성가정 입양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9-15 www.holfcac.or.kr, http://hfc@holfcac.or.kr E L.02) 764-4741~3 F.02) 764-4746
	동 네 천사의 집	북 음 성 동 면 인 리 산 1-45 E L.043) 879-0285

생명위원회 상 기 교육 및 행사 내

*문의 ☎ 02) 727-2351

형 생명교육 '생 명 교'

• 주제 : 인간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생명윤리

	시	장	수	비
1	2/21-6/20 (월) 오전 10시 30분	동 성당	월 1회/ 총 4회	3지구 구반장교육
2	3/12-5/7 매주(토) 오후 8시	등 1동 성당	8주	진 교 리
3	1/6-12/1 매월 (목) 오후 6시	남대문 성당	월 1회/ 총 10회	생명 성시간
4	3/18-4/15 매주(금) 오후 8시	이문동 성당	5주	사 특 강

* 마 지 날 수료미사 실시 (집전 : 염수정 주교)

청년을 위한 성, 생명, 사 교 4기

- 제목 : <성 · 생명 · 사랑학교>- (성), 생명을 나 는 사랑의 언어
- 주관 : E 선교회
- 기간 : 2011년 4월 27일(수)~6월 15일(수) 총 8주
매주(수) 오후 7시30분~9시30분
- 장소 : 교구청별관 3층 회의실
- 회비 : 3만원

로 그 내용

1주	개강미사 및 오 리 이
2주	성, 생명, 사랑에 관한 우리의 생각
3주	창세기에 나 우리 몸 매 얼
4주	그 남자, 그 여자
5주	참된 성 회복 (구원)
6주	본래의 아 다 운 사랑
7주	사랑으로 부르심 : 혼인
8주	나의 생명, 기 선물
수료	수료증 수여



제20차 정기 세 미 나

- 일시 : 4/28(목) 오후7시-9시
- 장소 : 가톨릭회관 2층 강당
- 주제 : 한국의 자살문제와 가톨릭교회의 할
- 주제발표 : 호 /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강 구 / 서울대의대 정신신경과 교수
서지영 /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우재명 신부/ 서강대 교수

제3회 청년생명 정 성, 생명, 사 의

- 일시 : 6/24(금) 오후7시30분 -6/26(일) 오후4시
- 장소 : 살 시 오 관구관(신길6동)
- 주요내용 : 오늘날 된 성과 생명,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회복하고자 우리 몸의 의미, 남성과 여성, 혼인 : 부르심,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피정을 통해 전하고자 함.

생명 a

가 '생명을 살 시 다' 방영

매주 (목) 또는 (금) (10:00/ 17:30 / 22:00)

a '생명은 사 다' 매주(일) 오전11시05분~12시

진행 : 지영현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평 화 신 문 '생명의 문화' 시 다' 공 동 기 : 주 재

간 지 생명을 위하여 집 에 는 생명수호 주
로 수 기 집 니 다. 200자 원 지 8 이내
수기가 신 는 의기 을 내 니 다.
많은 참여 니 다.
내 실 :

본 생 명 담 자 상 기

- 주제 : 인간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생명윤리

시	장	대 상	비
1차 : 521 5 22	시 오 관구관	지	입 : 오후5시 : 오후4시
2차 : 528 5 29	의 집	동 지	
3차 : 618 6 19	상 지 의 집	지	

- 파 미사 중 생명수호담당자 임명장 수여식 실시
- 본 생 명 담 자 님 은 해 지 드 시 여 하시 기 다.

타 체 생 명 교육 및 행사 주 최 : 서울대교구가 정 사 부

♡ 한 출산, 행 한 가정을 위한 부 부 교 교

- 대 상 : 임신 4개월 이상의 부부
- 기 간 : 3주간 토요일
- 일 시 : 3/5~3/19, 5/28~6/11 오후2시-5시
- 장 소 :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참가비 : 부부 당 10만원 (전화 신청 후 입금)
- 문 의 : ☎ 02-727-2072

♡ 상 처 치 로 그 및 미 사 으 로 가 는

- 대 상 : 낙태상처에 대한 영적치유를 원하는 분
- 기 간 : 월1회
- 일 정 : 3/8, 4/12, 5/17, 6/14 (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 장 소 :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준비물 : 기 도 구, 미사준비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 02-727-2071



1. 第一，在“...”后面加上“...”
 2. 第二，在“...”后面加上“...”
 3. 第三，在“...”后面加上“...”
 4. 第四，在“...”后面加上“...”
 5. 第五，在“...”后面加上“...”
 6. 第六，在“...”后面加上“...”
 7. 第七，在“...”后面加上“...”
 8. 第八，在“...”后面加上“...”
 9. 第九，在“...”后面加上“...”
 10. 第十，在“...”后面加上“...”

», S₁², " f ", #.

», • # »'c + d °.'.

..# # », „» [S₁² · Ø» S - , #.

“~”

7 -" E~ z ^... ("E~>> ...)

"E~ f~ : 02-727-2353

"E~ , z~ - : z f~" 1005-601-046898 z~ : () ^~ z~. °z~ , f~ . , z~ ,

[illegible]